데드라인 코앞…해법 못찾는 금호타이어

채권단 "협약시한 못미뤄…해외매각 거부시 법정관리"

노조, 내일 '매각 철회' 총파업…정부·광주시는 뒷짐만

금호타이어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30일까지 이틀을 남겨놓고 있지만 노조와 회사측, 채권단 등 누구도 양보안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정부와 광주시 등은 사실상 뒷짐을 진 채 조정·중재에 나서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자율협약 종료일, 더 못 미뤄"=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자율협약' 종료일을 더 미룰래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달 말까지 노사 합의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고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타이어뱅크 인수 발표와 관련해서도 "'제3자가 나타났으니 해외매각을 철회하고 (자율협약을) 연장하자는 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도 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그는 "다음주 월요일 수백억원 어음이 돌아오면 부도처리 될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정리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감사인 보고서도 감사의견 거절이 나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이후 법률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누구의 결정이 아닌, 형식적 요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 "청와대도 못 막는다"고도 했다.

◇노조, 30일 총파업=금호타이어 노조는 오는 30일 총파업을 벌인다. 이날 예정된 자율협약 종료에 맞춰 벌이는 파업이라는 점에서 중국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동의해달라는 채권단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노조는 '해외매각 철회, 법정관리 반대, 국내기업 인수'를 내걸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도 동참할 태세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광주전남지역민 4259명의 성금을 모아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반대한다'는 신문광고를 내며 여론전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촉박한 시간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한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 전임 집행부로 구성된 '현장투쟁노동자회'는 "사회적 지지와 여론을 주도하거나 살피지 못해 파국과 법정관리를 자초한 책임이 노조에게도 있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조합원 설명회 및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한 향후 방향과 방안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다른 노조원들의 조직인 '노동과 희망'도 "협상은 뒷전이고 감정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막연한 추측과 가설만으로 법정관리를 막겠다는 것은 바람 앞의 촛불에 2만 가족의 생존권을 맡기는 것과 같다"며 법정관리 이후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박주선, 김동철, 권은희 의원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금호타이어 운명은 노동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 "회사를 살리고 노동자의 고용도 보장하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타이어뱅크 외 투자업체도 튀어나왔다. 미국투자업체라고 밝힌 S2C 캐피털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호타이어에 6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며 관련 재무적 투자의견서를 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에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투자업체는 경영권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제시하는 한편, 30일로 예정된 금호타이어 법정관리를 막기 위한 긴급자금 투자도 산업은행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해 진정성, 실현가능성 등에서 산업은행측 판단이 주목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19.29 (-32.77)	↓ 금리 (국고채 3년) 2.22% (-0.01)
↓ 코스닥 850.97 (-7.87)	↑ 환율 (USD) 1070.80원 (+0.50)

호남 제조업 절반 "올 설비투자 확대"

한은, 업체 38곳 설문

호남지역 제조업체 절반 가량은 올해 설비 투자를 작년보다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8일 호남지역 제조업체 38곳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비올해 설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업체의 47.4%가 "늘리겠다"고 답했다. 26.3%는 작년보다 설비투자를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업체들은 올해 설비 투자를 결정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수출 상황 및 전망'(44.7%)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내수 상황 및 전망'(28.9%), '내부 자금 사정'(21.1%) 등을 들었다.

부정적 부분으로는 '국내 경제 불확실성'(60.6%), '해외 경제 불확실성'(55.2%), '내부 자금 사정'(31.6%), '수출 상황 및 전망'(28.9%) 등을 들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1분기 호남지역 경제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 설비 투자 및 수출은 소폭 증가, 건설투자는 소폭 감소, 소비는 보합으로 예상했다.

또 취업자 수는 증가, 소비자 물가 및 주택매매·전셋값은 상승 폭 축소, 기업자금 사정은 다소 악화될 것 등으로 전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가축사육농가 구제역 방역 총력

28일 목포무안신안축협 공동방제단이 지역 내 한우 사육농가를 찾아가 축사 소독을 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 공동방제단은 28일 전남지역 내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소, 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소독활동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농협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 김포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영향으로 전남지역 15개 가축시장이 오는 4월9일까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4월에 예정된 소와 염소 등 백신 일제접종 시기를 앞당겼으며, 전남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10만1000마리의 어미돼지에 대해서도 구제역 2가 백신 일제접종을 펼칠 계획이다.

박태선 본부장은 "전남이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인 만큼 농협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독강화로 구제역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aT,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11년 연속 '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28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7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11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고객 중심의 경영 촉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되고 있다. 지난해 공기업(25개), 준정부기관(87개), 기타 공공기관(120개) 등 총 232개 공공기관이 조사대상이었다.

aT는 11년 연속 A등급 달성을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만족경영 노력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피콜 서비스와 고객상담실 등 운영과 고객의 의견이 사업개선으로 연결되는 내부 혁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불편을 제거하고 욕구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병호 사장은 "고객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사람중심의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대한기계설비건설협 정기총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최봉호)는 28일 광주시 남구 호텔 프라도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정기총회'를 갖고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을 의결하는 한편,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 근속임직원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제공〉

국내 광산업체 해외시장 판로개척

전국 61개사 미·일·중·독 광융합 전문전시에 참여

광주를 비롯한 국내 광산업체들이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28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일본·중국·독일에서 열린 광융합 전문 전시회에 광주지역 광융합 기업 등 전국 61개사가 참여, 해외에서의 판로 확보에 공을 들였다.

이들 기업들은 일본 LED NEXT STAGE 2018(6~9일), 미국 OFC 2018(13~15일), 중국 상해 레이져 포토닉스(14~16일), 독일 Light&Building Messe(18 ~ 23일) 등 4개국에서 열린 광융합 전문 전시회에 공동관을 구성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나섰다.

공동관 운영을 통한 해외시장 공략은 국내 광산업 육성·진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광산업진흥회가 주도해 이뤄졌다.

광산업진흥회는 체코·독일 무역사절단에도 10개 광산업체들을 참여토록 하는가 하면, 관련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 바이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제공하는 등 국내 광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공을 들여 1410만달러의 수출 계약 체결로 이어지는데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동관 참여 기업들은 국내 유망 제품을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기업간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는 입장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삼성, 中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西安)의 반도체 공장에 2기 생산라인을 건설한다.

삼성전자는 28일 중국 산시성(陝西省) 시안시(西安市)에서 '삼성 중국 반도체 메모리 제2 라인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작년 8월 시안 반도체 2기 라인 투자를 위해 3년간 총 70억 달러(약 7조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산시성 정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